

동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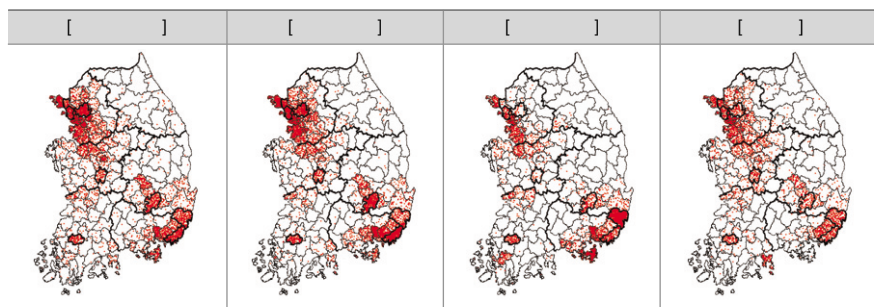
하창현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책임연구원
habak@chol.com

동남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조업 측면에서는 수도권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국의 23.4%로 수도권 41.7%에 비해 매우 적지만, 생산액은 전국의 28.6%로 수도권 28.5%보다 더 많아 실질적인 국내최대의 산업집적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권의 제조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의 종사자수는 전국의 86.4%로 자동차, 조선관련 산업에 매우 높은 집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은 4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은 56.3%로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 내외로 열악한 수준이다. 생산액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89.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56.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40.8%로 동남권의 주요 산업적 특성이 수송기기 및 기계, 석유화학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인 이상

▶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현황



▶ 광역권별 2011년 수출현황

/	(\$)	(%)
	555,213,655	100.00
	170,365,176	30.68
	56,002,512	10.09
	26,805,483	4.83
	87,557,181	15.77
	76,245,605	13.73
	4,122,180	0.74
	12,169,671	2.19
	59,953,754	10.80
	66,149,705	11.91
	13,339,695	2.40
	12,818,350	2.31
	39,991,660	7.20
	58,500,563	10.54
	6,371,158	1.15
	52,129,405	9.39
	181,848,946	32.75
	14,561,601	2.62
	101,480,083	18.28
	65,807,262	11.85
	2,077,128	0.38
	1,977,393	0.36
	99,735	0.02
	26,532	0.00

대기업이 전국의 24.6%이고, 1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24.3%로 대체로 동남권의 제조업은 타 권역에 비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많아 규모면에서 크다

▶ 동남권 광역선도산업 선정현황

	품목 부품	• 풍력핵심 기계 및 전장부품 • 풍력핵심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 •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준심해용)	화학 융합소재	• 2차전지 핵심소재 • 극한 환경용 소재 • 고기능성 접착소재 • 구조기능 내외장재 소재 • 고감성 표면처리 기능제어 소재
	원전 설비	• 중대사고 및 재해대비 설비 • 원전용 핵심 BOP 개발(M/E BOP) • 사용후 핵연료봉 보관 및 수송용기		
	지능형 기계부품	• 고효율 동력전달부품 • 제어계측 및 정밀생산기기	해양플랫폼 기재	• Topside시스템(상부시스템) • 유틸리티 시스템 • 심해용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친환경 차량부품	• 엔진구동부품 • 고감성 내·외장 부품		
	항공	• 회전익 항공기부품 •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 • 소형 항공기 친환경 추진 장치 • 항공기 탑재 소프트웨어 • 항공기 피로 치명성 구조용 부품 • 항공기 보조기기	그린 선박기재	• 친환경 고효율 추진 시스템 • 연료전지 기반 선체 및 추진시스템 • 스마트 항해통신 시스템 • 스마트 계측제어 시스템 • 레저용 선박부품·소재

고 할 수 있다. 동남권은 전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계금속산업, 수송장비산업, 화학산업 등 주요산업에서 전국적으로 집중도가 높다.

수출현황을 보면, 동남권은 2011년 1,818.5억 달러로 전국의 32.75%에 이르러, 수도권 1,703.7억 달러, 30.68%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014.8억 달러로 전국의 18.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동남권의 제조업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산업지표에서 동남권은 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집적지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주요 산업집적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광역선도산업이 선정되었으며, 선도산업은 현재 동남권의 주요 기반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권 3개 시도에서는 지역간에 산업적 구분이 다소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합의 과정을 거쳐 2단계 선도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

▶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의 비전과 목표



시할 수 있었으며, 권역내 시도간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수송기기 및 기계, 화학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남권의 선도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의 산업을 선정하였고, 미래성장동력은 이러한 기반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위해 도출하게 되었다.

산업별 주요 특성을 보면, 풍력부품과 원전설비는 미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기반산업인 기계부품과 연관되어 있고,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융합소재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하고 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은 지역 특화의 대표 산업이며, 해양플랜트기자재와 그린선박기자재는 전국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다.

동남권은 국내 기간산업 집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 산업집적지로서 세계와 경쟁하는 전초기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그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의 비전은 “동남권 자립경제권 구축”으로 제시하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자족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현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는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신규사업의 도출과 관련산업의 특화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선순환의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미래성장동력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문기술인력 양성, 선도기업 육성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8개 프로젝트별 사업목표를 제시하여 선도산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동남권은 주요 기간 산업의 집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동남권이 가지는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동남권만의 산업경쟁력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